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명품
빅맨평생통장

- 예금 거래 실적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발기 2541년(서기 1997년) 3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최근 과학자들이 양, 원숭이, 돼지 등을 복제하는데 잇따라 성공하면서 인간복제의 가능성과 윤리문제를 놓고 전세계가 떠들썩하다. 우리 정부도 인간복제 기술과 관련, 실험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인간복제는 인간을 인간자신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존엄성 상실의 위험이 가장 크다는 우려다. 고교에서는 인간의 존귀함을 설파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부처님말씀에 어긋나고 연기법(緣起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如來藏)을 가진 가장 부처다운 존재인 인간. 경전과 선 어록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들여본다. (편집자 주)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다. (諸德)의 번뇌 가운데 있을 세상에 나서 오래 살기 어렵 자라도 여러장이 있어 항상 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 시기 어렵고 부처님 법 을 듣기 어렵다. (법구경)

사람의 몸 받기 어렵다

대장부들이여, 당신 들이 우리의 선지식이 으 일체중생을 보호하 는데 우리에게 보리심 을 발하라고 전하는 것 이오, 우리들도 당신들 의 권유를 따라 일체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 옴니 우리가 미래세에 성불할 때 모두 세존과 같기를 원하오. (법동경)

오, 장하다 선(善) 철)여, 도를 구하는 정성이 참으로 가혹하다. 이같이 자극한 정성으로 너는 오는 세상에 부처의 도를 성취할 것이며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본생경)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고 여래는 항상 우 리를 자식으로 보고 설법하 신다. (법화경 비유품)

생명있는 모든 것 결정코 안 죽어라. 자비심 일으키어 뜻 생명 사랑하며 죽어가는 저 중생 힘따라 구호하세. 이 일을 어긴다면 그 죄를 어찌할고. (법명경 제11개조)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 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부처 인 줄 모르고 자기 성품이 참진리인 줄을 알지 못한다. (수심경)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山行은 信行... 불교산악인연 창립 15년

불교문화 테마여행-3월 내소사 접수 **인내14만**

문체부, 방생법회 자제요청

각 종단에 협조 공문... "생태계 파괴 우려"

문체부가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에 비롯한 28개 불교종단과 70개 불교법인 앞으로 '방생법회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육식성 물고기의 방생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수년 전부터 불교계 일부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육식성 물고기를 방생함으로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95년에도 환경부가 '방생법회시 외래어종의 사용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하는 대규모 방생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계종총무원에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방지를 위해 수입물고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방생법회는 통일운동과 환경운동을 함께 묶는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교내부에서도 "94년 개혁회의 때 고교부사 및 직할사원에 불교기 방생법회의 금지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며 방생 재검토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방생법회 계획은 개혁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문태영교수(고신대 생물학과)는 방생을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해당하천에 적합한 수종이라도 그곳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치 않고 다량의 물고기를 일시에 유입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교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의 종을 인공사육해 살기 알맞은 곳에 방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태영교수(고신대 생물학과)는 방생을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해당하천에 적합한 수종이라도 그곳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치 않고 다량의 물고기를 일시에 유입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교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의 종을 인공사육해 살기 알맞은 곳에 방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의 한 담당자는 "자칫 불교고유의식을 정부에서 침해한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표현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해 "자책" 이상의 뜻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오는 4월 임진강변에서 2인여명의 신도들이 참가



의장 해암스님 부의장 박암스님 의원 승신스님 의원 탐성스님 의원 정령스님

해암스님 의장 사표 반려

조계종 원로회의 박암스님 부의장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해암)는 지난 10일 총무원에서 회의 를 갖고 의장 해암스님이 제출 한 사표서를 단장일처로 반려

119회 중앙총회에서 추천된 승산(회계사 조실) 탐성(공립사주지) 정영(감사 주지)스님을 원로위원으로 선출했다. 안건 처리에 이어 원로스님들은 97 사업계획과 예산보고 등 총무원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비룡, 박암, 석주, 용담, 도원, 지흥, 성수, 도건, 청하스님이 참석했다.

조계종 비불자 포교전략 연구 추진

각국 현황 등 8개분야... 21세기 신형상 정립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중)은 지난 11일 '비불자 포교전략 중점연구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각국 불교 포교 현황연구 등 8개 분야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점 연구, 포교사업에 반영할 계획 이다.

포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각 종 포교사업 계획수립시 활용 토록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

는 이 연구를 위해 포교원은 5월부터 매주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열어 각 분야 연구사업의 각본 및 세부추진 계획을 올해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중점연구 과제는 △각국 불교포교현황 연구 △포교의 국제화 △포교 모범사례 발굴 및 연구 △포교기금 마련 방안 연구 △방생 등 신형프로그램 연구 △특수분야 포교방안 연구 △특수계층 포교방안 연구 △

"대장경에 새 새명을"

디지털 대장경 불사에 동참합시다

민족의 위대한 상보 팔만대장경의 전산화작업은 첨단 정보문화시대가 도래하는 21세기를 앞둔 현재 부처님의 말씀을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편이며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문화사업입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경도로 전환하는 이 불사는 대장경 원문과 한글 번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러 장식화하는 방대한 디지털대장경 작업으로 오는 2000년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불사는 12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에 국민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대역 사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3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100일간 전개하는 팔만후원인 모집운동을 적극 후원 합니다. 팔만대장경 새 새명 넣기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20억원 소요...2000년 완성 목표

△기간: 3월 17일~6월 23일(100일간)
△추진방법: 1사람 1경관 만들기 운동을 통한 팔만후원인 모집
△전산화내용: 팔만대장경 원문 및 한글, 영상 일러, CD 제작
21세기 팔만대장경 경관에 후원인 이름 입력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행사 내용	날 짜	장 소
119회 팔만대장경 원문·한글·영상·일러·CD 제작	4월 7일	도선사·봉은사
팔만대장경과 해인사목보배	5월 1-27일	호암갤러리
후원기금마련 리셉션	5월 6일	롯데호텔
고승초상법회	6월 10일	부산시민회관
고승초상법회	7월 10일	대구시민회관

△추진위원회: 조계종 총경, 조계종 총무원장, 김수환주 기 경, 국무총리, 문화체육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NCC 총무 등 학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인사 300인

△동참문의: 고려대장경연구소 (02)3785-0632~5
계좌번호: 예금주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국민은행 (02)-20007 조흥은행 320-01-129418
모성은행 169-04-10493 의화은행 089-13-15261-2
모우은행 012654-0043837-11 시흥은행 32001-0683004

주최: 고려대장경연구소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중단협-진흥회 '해빙 분위기'

분리나 재결합이 아닌 기묘에 있던 중단협회의와 중단진흥회 가 이견차이를 좁히고 화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월서스님(중단협 상임부회장)이 원용 총화 조동 중등 8개종단 총무원장을 초청 한 오찬모임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발도개회안을 철 회하면서 구체화했다. 이날 월 서스님은 "그동안 중단협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피부미용을 추구합니다.

신도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미!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프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상신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도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icid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정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인한 첨단생명공학적인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실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과 미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 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경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연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입니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내